***PRESS INFORMATION***

|  |  |
| --- | --- |
| **참고 자료** | **2023. 10. 16 배포 시부터** |
| **사진 설명** | **LS전선 직원이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
| **문의** | **강철 차장(02-2189-9607, 010-9447-7079,** [**ckang@lscns.com**](mailto:ckan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싱가포르서 초고압 케이블 수주**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 올해 누적 수주 금액 약 3,500억**  **■ 아시아 최대 초고압 시장 싱가포르에서 10년 이상 1위 지켜**  **■ LS전선과 LS전선아시아에서 제조, 턴키 공급**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1,130억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LS전선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누적으로 약 3,500억원을 수주, 아시아 최대 규모 초고압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  싱가포르는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고 땅 밑을 지나는 지중 케이블만으로 전력망을 구성한다. 이에 고부가가치 지중 케이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유럽 등 글로벌 전선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LS전선은 2010년부터 싱가포르 시장을 적극 공략, 시장 점유율 1위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잡았다.  LS전선 관계자는 “코로나 3년동안 홀딩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올해 다시 재개되었다”며 “일반 소비재와 달리 내구성, 안정성, 신뢰성이 중요한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안정적 품질관리 등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을 통해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케이블 납품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이뤄진다. 케이블은 230kV급 이상은 LS전선이, 66kV급 이하는 LS전선아시아가 공급한다. | |